

모든 충남도민께 100% 국민지원금 드립니다

지원금 제외됐던 도민 12.4%
11월부터 시군에서 지급 합의
“전 도민 상생과 대승적 차원”

26만2233명 대상 656억 반영
도-시군 절반씩 분담 합의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 지급
“시군간 불평등 해소 위한 것”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위해 충남도

가 경기도에 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에 살아 행복합니다.”

충남도가 11월부터 도민 10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도민 26만여 명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은 도와 시군이 ‘전

도민의 상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도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둘째 날이었던 9월 7일부터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논의한 끝에 10일만에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100% 추가 지급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지사는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

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함께했다”고 했다.

기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185만 5167명,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이다.

이번 추가 재난지원금은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소요 재원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시군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도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상생국민지원금 추

가 지원은 ‘상생’에 있다”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32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충남도민
충남 재난지원금 대상인원

(충남 50%, 시군 50% 부담)

시군	총 인구 (6.30기준)	도시군 자체 지원 대상인원(명)
합계	2,117,400	262,233
천안	657,503	100,745
공주	103,640	10,396
보령	98,993	9,742
아산	320,340	47,550
서산	176,090	26,611
논산	115,305	7,808
계룡	43,168	4,387
당진	166,754	20,807
금산	50,890	3,165
부여	64,361	3,907
서천	51,153	3,786
청양	30,548	1,769
홍성	99,440	9,432
예산	77,348	6,166
태안	61,867	5,962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제67회 백제문화제 성료

올해 축제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국보 제154호 금제관식을 표현한 메인 상징조형물과 무령왕과 왕비의 대형 유등으로 시작되는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주최하고 백제문화제재단이 주관하는 ‘제67회 백제문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0월 3일 폐막했다.
/공주시

서해의 관문 충남공항, 百濟의 항로를 잇다

■ 뉴스 맥락 읽기

김영삼 대통령이 첫 제기

충남 서산 해미에 민간공항이 들어설 내년 예산 15억 원이 확보돼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공항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1997년 서산 공군부대 창설식에서 김 대통령은 서산 민항 설치를 지시합니다. 그로부터 충남 도민들의 숙원이 된 겁니다. 내년에 반영된 기본계획수립비 15억 원은 ‘금의 지시’ 25년 만의 일이고, 다섯 명의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56분의1 비용

충남공항은 저비용 건설이라는 점과 함께 고효율의 경제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군 활주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용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미널과 계류장, 진입도로만 건설하면 됩니다. 비용은 509억 원. 바다를 메워서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 가덕도 신공항 28.6조원의 56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새만금공항 779억원,

울릉공항(6651억원), 흑산도공항(1833억원)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비용입니다.

가성비 높은 고효율 공항

저비용 공항이면서도 경제성은 고효율입니다. BC값이 ‘1 이상’이어야하는 경제성은 1.32에 이릅니다. 국내선은 2023년 33만 명, 중국과 동남아 노선 3만8000명을 시작으로 2053년까지 국내선은 47만명, 국제선은 8.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충남도가 개척한 ‘백제의 꿈’

올해는 백제 25대 임금 무령(452~523) 왕릉 발굴 50주년의 해입니다. 서거 1500년 전 백제를 부흥시킨 무령왕의 위업은 통합과 외교, 개방성, 그리고 문화강국입니다. 주변 국과의 외교력을 선보이며 갱위강국(다시 강한 나라가 됨)을 선포했습니다. 충남공항은 어쩌면 무령왕의 백제의 꿈이 바다길에서 하늘길로 개척하는 개방성과 맞닿습니다. 충남도가 충남공항을 통해 중국과 신남방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국제 순례성지가 된 해미

충남공항이 예정된 해미순교성지는 올 3월 교황청 승인 국제성지로 선포됐습니다. 해미순교성지의 국제성지 선포는 2018년 9월 서울대교구 순례길 이후 두 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해미순교성지는 2000여 명 안팎의 천주교 신자들이 1800년대 병인박해 등으로 처형당한 순교지입니다.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충남공항을 통해 스페인 산티아고처럼 전 세계 순례객이 방문할 날이 머지 않은 겁니다.

비행기가 노을을 타는 고장

내 고향은 해미(海美). 어린 시절 해미는 가난해서 보여줄 것이라곤 노을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는 서산AB지구 간척으로 사라졌고, 토지는 비행장 건설로 평평해졌습니다. 그래도 노을만은 지금도 도비산(서산부석면) 서쪽 하늘을 밝게 물들입니다. 아마 몇 년 후면 항공기는 승객을싣고 노을 속으로 날아가겠지요.

이찬선 도정신문팀장
chansun21@korea.kr

제2의 서해대교 대선공약 담는다

도, 대선공약 84개 과제 발굴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구축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11월 주요 정당·후보자에 전달

충남도는 9월 30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위기 대응 토론 및 대선공약 발굴 과제 조성’ 등을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과제다.

양승조 지사와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공공기관장, 외부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토론·보고회는 실국원별 미래 위기 대응 및 대선공약 발굴 과제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변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디지털화 ▲탄소중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육아·교육 혁신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 참여 촉진 ▲정주여건 개선 ▲소멸 지역 지원 ▲연금·보험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내년 대선공약은 각 시군,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현안, 타 시도 협력사항 등 191건을 1차로 찾은 뒤, 정리 작업을 통해 9개 분야 84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대선공약 중 ▲소득·자산 정부 통합관리체계 구축 ▲금강하구 생태복원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 철도 구축 ▲아동 의료비 10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국립 세계종교박물관 건립 및 명품 내포 순례길 조성 등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과제다.

이와 함께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종합병원’ 설립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수소 특화 산업단지 조성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등 기존 현안도 공약 과제로 포함했다.

도는 대선공약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11월 중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 공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남의 미래 전략과 비전이 공약화 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심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2

‘충남행복주택’ 중국서 2억 5000만회 ‘광클’

中 CCTV·日 TBS서 보도하며 주목
현지인들 “부럽다” 등 뜨거운 반응
도, 역점 추진 저출산 극복 사업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임대료 무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관련 중국 CCTV보도
캡처 화면 .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 유력 매체가 잇따라 취재·보도하며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지난 9월 20일 국제채널(CCTV4) ‘오늘의 아시아주’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행복주택을 보도했다.

CCTV는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평가 있다고 보도했다.

CCTV는 또 같은 날 경제채널 경제

도는 중국인들이 보도에 대한 댓글을 통해 ‘부럽다’, ‘중국 내 도입 시 아이 둘 낳기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 ‘이웃 한국에서 시행하는 만큼)

중국에서도 집을 줄 날이 멀지 않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대표 민영방송 중 하나인 TBS는 9월 9일 국내외 뉴스·정보 전달 프로그램인 ‘엔(N)스타’를 통해 충남행복주택을 비중 있게 다뤘다.

TBS는 지난 6월 도청과 아산 첫 사업 현장, 보령 임대료 지원 두 번째 수혜자 가정 등을 직접 취재했다.

TBS는 보도에서 세계 최저 출산률, 주택가격 급등, 취업난 등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자체 대표 대책으로 충남행복주택을 소개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과 높은 주거비 용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로, 두 나라 대표 언론매체가 충남행복주택을 보도한 것은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기 위한 충남도의 시도를 주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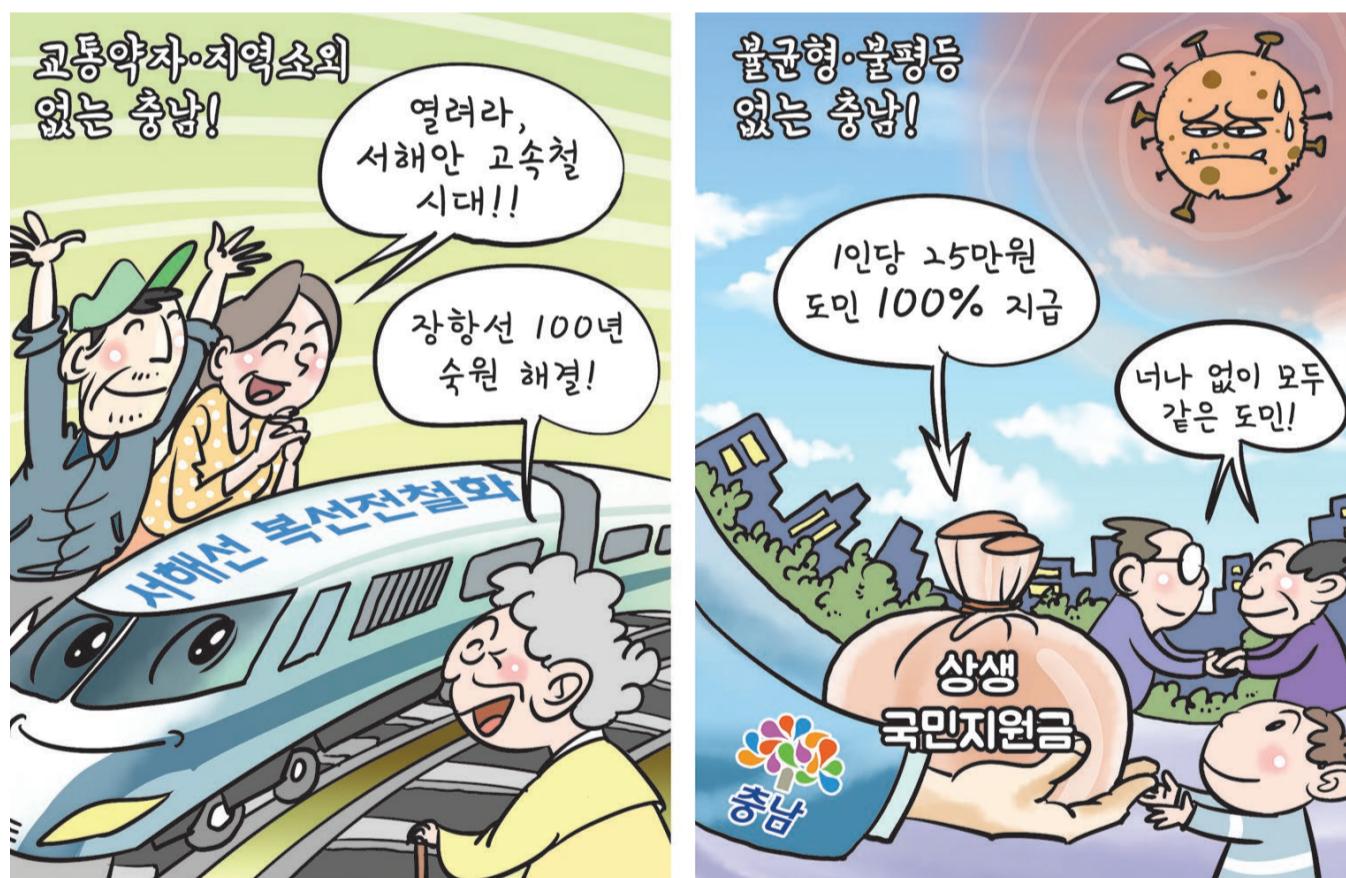
한편 도는 브랜드명을 ‘충남 꿈비체’로 정한 건설형 915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15호의 충남행복주택을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아산 첫 사업은 최근 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행복주택은 특히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지원받게 된다.

/건축도시과 041-635-4647

도정만평



설인호

보령해양미드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NH농협, 후원금 3억 원 기탁

보령해양미드박람회 공동조직위원회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은 9월 29일 여운철 NH농협은행충남 영업본부장과 ‘2022보령해양미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NH농협은행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개최 예정인 보령해양미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보령해양미드박람회조직위원회와 NH농협은행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마련했다.

NH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후원금 3억 원을 조직위에 전달했으며, 박람회 개최 시 전시·홍보관을 운

영기로 했다.

조직위는 후원금을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해양주제관 설치 및 사회적 액자 지원에 활용하고 공식 후원사를 위한 홍보관 제공 등을 추진한다.

2022보령해양미드박람회는 내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령해양미드박람회조직위원회
041-930-2831

충남 의료진 방호복 1000벌 쾌척

에이젯원·드림즈에이젯원·인랩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월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상한 에이젯원·드림즈에이젯원 대표 겸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회장, 손석봉 인랩 대표를 접

견하고, 방호복 1000벌을 전달받았다.

이번 방호복은 에이젯원·드림즈에이젯원과 인랩 등이 뜻을 모은 것으로, 도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코로나19와 사투를 펼치고 있는 도내 의료원 의료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이젯원·드림즈에이젯원은 일반 건설공사와 부동산 개발 건물 건설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기부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 중인 기업이다.

인랩은 보호복·단체복 제작 등 의료제조 전문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내포신도시 전국 최고 ‘자전거 천국’ 만든다

시설 개선, 공공자전거 도입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전국 최고 자전거 도시로 조성한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9월 16일 내포신도시 자전거도로를 라이딩을 통해 점검하며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내포신도시 내 자전거도로는 28개 노선으로, 총 연장 70.1km에 달한다.

도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안전성과 주행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용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자전거 횡단보도 경계석을 낮추고, 버스 승강장 인근에는 자전거 유도선을 설치하며,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조성하고, 자전거 통행량 측정기와 거치대를 설치한다.

또 고유 브랜드를 갖춘 공공자전거도 도입, 내포신도시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교통 수송량의 30% 이상을 자전거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정책과 041-635-4598

충남내포신도시서 창업 꿈 키우세요

도·한밭대·충남신보 협약

기업 성장 교육시설 구축

충남도가 한밭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내포신도시 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시설 구축과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9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최병욱 한밭대 총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충남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밭대는 이번 협약으로 내포신도시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 교육시설 구축과

스타트업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신보는 내포신도시 교육시설이나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스트арт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도는 충남신보의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기업에 대해 1.7%p의 이자보전을 진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트арт업 인재 발굴·스타트업 도내 이주 지원 등 한밭대와 폭넓은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양승조 지사는 “청년들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3

날개 펴고 하늘 나는 새 모습

무령왕릉 출토유물 살펴보기

⑧금뒤꽂이(왕)

왕의 머리 고정한 꾸미개

상단 테두리 축조기법 사용



금뒤꽂이(길이 18.4cm, 너비 6.8cm)는 널방 내 동쪽에 위치한 왕의 배개頭枕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배개는 동벽에 인접하여 남북 방향으로 넘어져 있었고, 금뒤꽂이는 배개로부터 서쪽으로 약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발견 당시 뒤꽂이는 윗 부분이 90° 가량 구부려져 있었고, ‘宜子孫’ 글자가 새겨진 청동거울青銅製宜子孫獸帶鏡 위에 놓여져 있었다. 방향은 윗 부분이 동쪽의 배개쪽을 향해, 꽂이 부분이 서쪽을 향해 있었다. 금뒤꽂이와 함께 유리구슬, 금판 등이 거울 위에 흩어져 함께 발견되었다.

뒤꽂이의 전체 모습은 마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새를 연상케 한다. 뒷면 가운데는 보주형寶珠形 또는 연꽃봉오리 모양의 머리가 있고, 두 날개를 펼친 듯한 역삼각형의 몸체가 이어진다. 그리고 아래 꽂이 부분은 새의 꼬리처럼 세 갈래로 갈라져 길게 뻗어 있다. 무늬는 크게 상하로 구분되는데, 상단에

는 꽃잎과 하단에는 인동당초무늬가 새겨져 있다. 무늬의 새김방식은 뒷면에서 앞면으로 두드려 볼록하게 무늬가 드러나는 티출기법打出技法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상단의 테두리를 따라 새긴 빗금무늬와 하단의 인동당초무늬는 가는 정이나 꿀을 연속으로 두드려 무늬를 새긴 축조기법蹴影技法이 사용되어 매우 세밀하다. 용도는 전체 모양과 출토 위치로 보아 왕의 머리를 고정한 꾸미개로 보인다. 금판의 성분 분석 결과 금(Au) 92.5~94.2%, 은(Ag) 3.3~3.7%, 동(Cu) 2.3~3.8%로 확인되어, 금의 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주박물관

장항선 철도, 디젤에서 전철로 달린다

개통 94년만 전구간 복선전철화

보령 웅천~군산 대야 39.9km

단선→전 구간 복선전철 확정

예산 1조 32억 2026년 완료

'서해안 KTX망' 완성

서해선~경부고속철 연결

서천~서울 '70분대 이동'

오는 2026년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 시대가 열린다.

장항선 개통(1932년) 94년 만에 단선에서 복선으로, 디젤에서 전철로 업그레이드되는데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 협공이 더해져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항선 보령 웅천역~전북 군산 대야 39.9km 구간 복선전철화가 최근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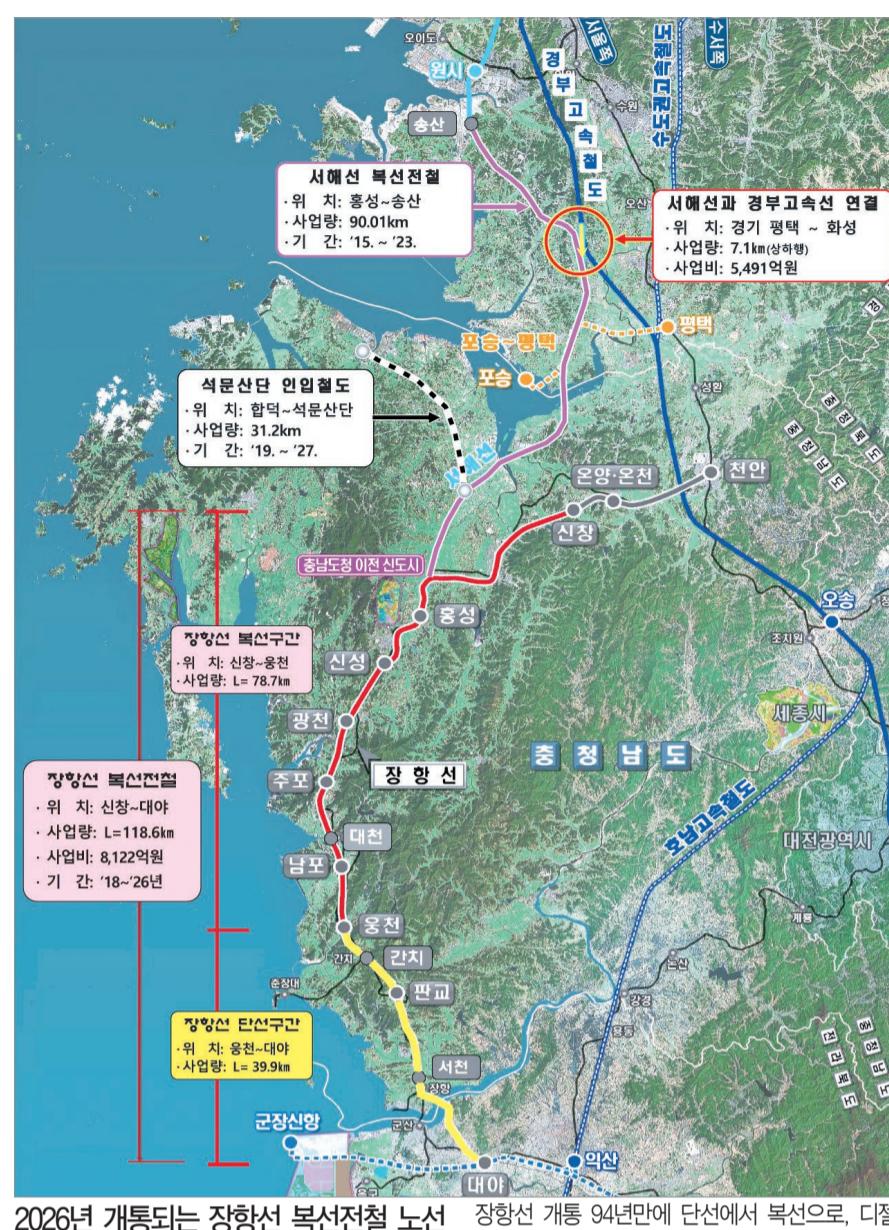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은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단선전철로 계획됐다.

도는 이 구간만 단선으로 남을 경우, 서해선 및 석문산단선 운행 시 선로 용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운송 속도도 떨어져 전체 사업 효과를 반감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복선전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기재부 총 사업비 조정 심의에서는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비 1498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아산 신창에서 대야까지 118.6km 구간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조 32억 원을 투입해 완료한다.

도는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하는 2026년까지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하는 2026년까지



2026년 개통되는 장항선 복선전철 노선

업이 완료되면, 서천 장항역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이동 시간이 3시간 10분 안팎에서 3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선로 용량은 51회에서 164회로, 113회의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서해선 개통과 경부고속철도 연결까지 마무리하면, 서천에서 서울까지 '서해안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게 된다.

이동시간은 70분 안팎으로, 두 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교통과 041-635-2835

양승조 지사는 "장항선은 환황해권 국가 대동맥이자, 수도권과 호남권을 잇는 주요 교통축"이라며 "이번 복선 전철화는 서해선 KTX 연결과 연계한 서해안 고속철도망 완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장항선 복선전철화와 서해선~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대학교수, 건축사, 안전기관 등 안전관리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설 관계자가 합동 점검해 위험 요인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육안 점검에 한계가 있는 초고층

빗물에 흘려보내는 기억

장항선 연가 - 아산 세교역

묵은 기억은 마음이 먼저 젓는다.
세교역 녹슨 철로변 낮익은 동상
바바리 깃을 세운 가을비 우산 속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틈바구니
오목눈이 둥지처럼 우뚝하기만 한
간이역 하나쯤 누구 가슴에나 있지.

(가을비 우산 속-세교역)

세교역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어 장재역으로도 불렸다. 주변 신도시에 쌓여 기억을 찾기도 어렵다. 다행히 장재을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오목눈이 둥지 같은 공원이 만들 어져 있다.

세교역 자리는 말을 갈아타던 역원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버드나무 노거수가 여려 그루 있다. 흔적만 남은 철로변에 우산을 쓰거나 기차놀이를 하는 동상이 공원을 지키고 있다. 어릴 적 새끼줄 이어 허리에 두르고 기차놀이 하던 동무들의 모습이다.



인적 없는 세교역에서 가요 '가을비 우산속'을 읊조려본다. 해가 짙어짐을 느낄 무렵 내리는 가을비는 웬지 누군가의 우산속에 깃들고 싶어지나 보다. 초목들은 막바지 초록을 뽐내다가 머지않아 떨켜를 만들어 잎들을 떨쳐버릴 것이다.

열돔 현상과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돋까지 겹친 여름을 잘 참아왔

다. 가을비는 두보의 '추우탄(秋雨歎)'을 되새겨보며 지난날을 성찰하는 듯 추적추적 내린다. 자연은 비를 내려 열돔의 대지를 식하는데, 가들이 되어도 마르지 않는 진흙탕과 헛된 망상으로 머리칼만 세지 않는지 돌아보라고.

/글 충청남도문화인협회 이심훈
그림 여행스케치회 흥기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특별기고

건축물, 터널 등 시설 점검

도민 참여 점검신청제 추진

(추진방향의 적정성, 실효성 강화, 후속조치 관리, 소통·협력 방안, 점검대상 및 점검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자문 결과인 드론 등 첨단 장비 점검 확대, 점검 시설별 운영기간 점검가능 여부 확인, 사전 홍보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등은 대진 단에 반영하여 추진된다.

더불어, 대진단 전 과정에 도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시군(414명)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국가안전대진단' 도민참여단이 구성·운영되며, 도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진단 점검신청제'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신청을 점검하는 등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점검신청제가 아니여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파손, 비상통로 미확보, 물건적치 등의 생활속 위해요소에 대해 도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민의 행복한 삶에 기본은 안전이다.

안전과 재난예방은 정부와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다.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안전이 제일이라는 안전의식을 실천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정구 충남도 재난안전실장

안전사고 예방·관리로 행복한 충남

도, 11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건축·여가시설 등 2405곳 점검

빌딩, 교량, 저수지, 산사태 위험지역은 안전 점검 사각지대가 없도록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을 활용해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는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한 도민참여단 414명이 대진단 전 과정에 참여하며, 도민이 안전사고 취약 시설을 직접 신청해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충청남도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 관리 이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설물과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비롯해 물류 시설, 중·소규모 공사장, 주민 선정 시설물 등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도내 점검 대상 시설을 6개 분야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시설 190개소 ▲생활·여가 644개소 ▲환경·에너지 212개소 ▲교통 및 교통시설 270개소 ▲보건복지·식품 398개소 ▲주민 선정 대상 시설 42개소 ▲기타 649개소 등 총 2405개소다.

도는 대학교수, 건축사, 안전기관 등 안전관리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설 관계자가 합동 점검해 위험 요인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육안 점검에 한계가 있는 초고층

/사회재난과 041-635-3283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道 17개 기업 4229억 투자 유치

15개사 신·증설 2개사 이전
임플란트·화장품·반도체 업체 등
고용 1810명·생산효과 3781억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9월 15일 홍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투자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9월 15일 홍성군청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등 4개 시군 단체장,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비롯한 17개 기업 대표와 협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7개 기업은 도내 4개 시군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30만 8742m²의 부지에 총 4229억 원을 투자한다.

이들 기업 중 15개사는 신·증설하고 2개사는 이전하며,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810명이다.

천안에는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 5만 1000m²에 1400억 원을, 건축 내외장재 업체 함라하우징이 수신면 개별입지 3만 2817m²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에는 전문 의약품 업체 알리코제약이 394억 원을, 의약품 업체 하이풀이 362억 원을, 휴대폰 카메라 업체 디팜스테크가 226억 원을, 화장품 업체 중원산업이 210억 원을, 진단시약 업체 보레다바이오텍이 104억 원을, 반도체 및 자동차용 부품 업체 디케이테크가 80억 원을 각각 투자해 공장을 새로 짓는다.

또 의약품 업체 퍼슨이 천안백석농공단지에, 냉동식품 업체 푸르온이 풍세일반산업단에 각각 215억 원과 143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 시작하면 도내에는 3781억 원의 생산 효과와 1019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8



핑크뮬리 개화 분홍빛으로 물들어

충남 태안군 남면 청산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더 드림 행복자금' 금융 지원 맞손

도·서부발전·하나은행·충남신보
태안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충남도가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태안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9월 15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형덕 한국서부

발전 사장, 이성진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총괄대표,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21년 더드림(The Dream) 행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각각 1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충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태안군 소기업·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3000

만 원씩 총 24억 원을 보증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충남신보의 보증서에 대한 대출을 진행한다.

도는 태안군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받을 경우, 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해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충남신보 추천 태안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협약 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신보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3

12월까지 '공유경제 아카데미'

도, 청운대 산학협력단

충남도가 오는 12월까지 공유경제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교육을 펼친다.

도는 청운대 산학협력단과 '2021년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공유경제 창

업가 및 전문가 육성 교육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순회 교육 ▲공유경제 필요성과 긍정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공유경제란 자원을 '소유'가 아닌 '공유' 해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지역 내 흘러져 있는 물건·공간·

지식 등 사용하지 않는 유무형 자원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눔문화를 실천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문화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041-630-3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경제과 041-635-2283

스타트업에 필요한 알렉산더 리더십

충청의 기업가 정신

솔선수범 커뮤니케이션 리더
신속 처리, 전력 집중 강점

어떤 리더가 우수한 성과를 내는가? 이는 수 천년을 내려온 질문이다. 지장, 용장, 덕장 보다 운장 즉 운이 좋은 리더가 최고라고 하는 걸 보면, 성공적 리더십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보다.

알렉산더가 두 배 이상의 전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이긴 전투에서 보여준 리더십에서,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되었고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알렉산더는 그는 가장 화려한 투구를 쓰고 전선의 맨 앞에서 직접 적병과 싸웠다. 그리고 다른 부대들은 무시하고, 다리우스가 있는 곳으로 곧장 말을 타고 진격하였다. 적 진영의 대응에 따라, 본인이 상황을 판단하여, 진로를 조정하고, 돌격하였다. 너무나 빠른 알렉산더의 공격에 다리우스는 도망가고, 이를 본 적의 대군은 전투 의지를 잃고 진영이 무너지며 퇴각하였다.

스타트업은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의 수준도 낮은 반면, 신속한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시만으로는 부하들에게 올바른 지휘가 어렵다. 당면한 문제들, 즉 판로개척, 자금 확보, 저렴하고 고품질의 생산 등의 밀려오는 업무를 알렉산더처럼 맨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혹시 내 업무 지시가 잘 처리되지 않는 스타트업 기업가가 있다면, 내가 행동으로 제대로 보여줬는지를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

충남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충남경제진흥원(원장 오광옥)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자금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충청남도의 자금지원 사업은 충남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자금시스템을 통해 일괄 접수하고 관리하게 된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온라인으로 육

성자금을 신청함에 따라 대면접수로 인해 발생했던 민원은 줄고, 도내 자금관련 공공기관들의 각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92

공공갈등 해결 힘과 지혜 모은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 20명 위촉

충남도는 9월 28일 충남내포혁실플랫폼에서 제6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선영 도의회 의원과 유준석 백석대 교수 등 각계각층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공갈등관리심의 위원은 앞으로 2

년 간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과 도의 공공갈등 관리 대상 지정 등을 심의·자문하고, 갈등 현장에서 컨설팅 등 조정 활동도 펼친다.

이우성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민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82

기업소개·구인공고 페이지 제작하세요

고용위기지역 기업 300곳 모집

충남일자리진흥원(원장 이시우)은 2021년 충남 고용위기지역 민관 취업 포털 채용관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고용위기지역 4개 시(보령·아산·서산·당진)의 소재 기업 300개사를 신규 모집한다.

과업 내용으로는 콘텐츠 제작 희망

기업에 대한 기업소개 및 구인공고에 대한 페이지 제작(최대300개사), 용역사 자체 AI 솔루션 및 맞춤형 인재채용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AI서비스, 비대면 면접서비스 제공을 통한 채용률 증대, 충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채용관 홍보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일자리진흥원 041-330-4989

충남 국도·국지도 16개, 1조 3000억 반영됐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8개 도로건설사업 非예타로 진행
공주 신풍-유구 2차로 신설 등
도내 반영 16건 전국 두 번째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충남도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비대상 8개 사업 32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통과한 예타 대상 사업을 포함하면 모두 16건, 1조 3343억 원이 반영, 향후 도내 끊어진 도로를 잇고, 꽉 막힌 도로를 뚫어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 9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

교통부가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5차 계획에 포함된 도내 사업은 예타 대상 8건 54.4km 1조 72억 원, 비예타 대상 8건 50.7km 32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은 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선형 개량과 도로폭 확대 등 시설 개선 사업이 대부분이다.

도내 반영 비예타 사업 및 투입 예산은 ▲공주 신풍-유구 2차로 신설 4.44km 409억 원 ▲청양 운곡-신풍 2차로 개량 2.55km 379억 원 ▲논산 연무-양촌 2차로 개량 9.68km 478억 원

▲논산 벌곡 한삼천-도산 2차로 개량 8.3km 408억 원 ▲금산 진산 행정-읍내 2차로 개량 6.3km 415억 원 ▲예산 고덕-당진 합덕 4차로 확장 4.94km 472억 원 ▲서천 화양-기산 2차로 개량 4.72km 225억 원 ▲홍성 서부 남당-광리 2차로 개량 9.75km 485억 원 등이다.

이 중 신풍-유구는 유구읍 시가지 우회 2차선 신설 사업으로, 공주-아산 간 연계성 향상, 유구읍 시가지 교통 정체 해소 등이 기대된다.

연무-양촌은 논산IC, 탑정저수지, 국방대 등을 연결하는 국지도68호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성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연무-양촌과 함께 한삼천-도산, 행정-읍내 등은 논산과 금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국지도68호 일부 구

간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논산-금산 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에 포함된 500억 원 이상 도내 예타 대상 사업에는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완성을 위한 천안 성거-목천 4차로 신설 ▲디스플레이산단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아산 읍봉-천안 성환 4차로 확장 ▲대산석유화학단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서산 독곶-대로 4차로 확장 등이 있다.

양승조 지사는 "5차 계획에 담긴 사업들은 도로 신설과 개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바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확보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사업명	연장(km)	사업유형
천안 성거-목천	12.88	4차로 신설
천안 동남 목천-삼룡	4.3	6차로 확장
천안 북면-입장	2.85	2차로 개량
아산 읍봉-천안 성환	9.33	4차로 확장
아산 송악 유곡-역촌	3.98	4차로 확장
서산 대산 독곶-대로	4.31	4차로 확장
논산 강경-채운	2.58	4차로 확장
태안 균흥 두야-정죽	14.13	4차로 확장
공주 신풍-유구	4.44	2차로 신설
청양 운곡-공주 신풍	2.55	2차로 개량
논산 연무-양촌	9.68	2차로 개량
논산 벌곡 한삼천-도산	8.3	2차로 개량
금산 진산 행정-읍내	6.3	2차로 개량
예산 고덕-당진 합덕	4.94	4차로 확장
서천 화양-기산	4.72	2차로 개량
홍성 서부 남당-광리	9.75	2차로 개량
16건	105.1km	



2020 도쿄 패럴림픽 보치아 금메달 최예진 선수 등 선수단 격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월 29일 도청 접견실에서 '2020 도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최예진 선수를 비롯한 도 선수단을 초대해 격려하고 성과를 축하했다. 양 지사와 보치아·사이클·역도·탁구 종목 도 선수단, 지도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결과 보고, 입상자 포상, 환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혁신도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

공공기관 유치 탄소중립 초점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기능군으로 '탄소중립'을 검토하는 등 기존 혁신도시와 차별화에 나선다.

충남도는 9월 1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충남혁신도시의 발

전 테마(공공기관 유치 기능군)로 '탄소중립'이 제시됐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해야 할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용역을 맡은 충남연구원은 충남혁신도시의 2050 탄소중립 조기 이행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주도형 공공기관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지원형 공공기관 ▲탄소중립 구현형 공공기관 이전 등을 꼽았다.

도는 12월 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지역 연계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정책과 041-635-4595

道 영국 고위 관계자와 기후위기 대책 논의

양승조 지사, 나이젤 토펑 접견
탈석탄·탄소중립 성과 등 공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월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나이젤 토펑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을 만나 기후 위기 대응 국내외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이젤 토펑은 지난해 1월 영국 총리가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으

로 임명한 영국의 기후행동 전문가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Conference Of Parties)의 성공 개최를 위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열리는 COP26에서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과리협정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범지구적 행동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접견은 그동안 도가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나이젤 토펑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은 "충남의 역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COP26에서도 지방정부 역할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탄소중립 확산 노력을 부탁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21

日 나라현, 교류 10주년 축하 영상

한국어로 백제문화제 축하

충남도는 9월 25일 공주시에서 열린 제67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도와 우호 교류 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은 나라현이 개막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나라현은 백제문화가 전수돼 형성된 일본 고대 아스카 문화의 중심지로 지금도 호류지(法隆寺) 등 백제 관련 유적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국제통상과 041-635-3361

"가을철 진드기 주의하세요"

도, SFTS 예방수칙 준수 당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 기간을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 진드기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및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SFTS 등 진

드기 매개 감염병의 실험실 진단을 위한 '신속대응 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SFTS는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며 "야외 작업을 할 때는 옷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하여, 귀가 후에는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62

"김시민 장군 업적 널리 알릴 것"

탄신 제467주년 기념식 개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월 25일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제 467주년 기념식 및 문화제'에 참석해 탄신제 개최를 축하했다.

김시민 장군은 1554년(명종 9년)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잣발

마을인 충청도 목천현 백전촌에서 태어나 1578년(선조 11년) 무과에 급제해 1592년 왜군의 진주성 침공에 맞서 진주대첩을 이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많은 이들에게 김시민 장군의 충절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유산과 041-635-3918

자치경찰 목표·전략 수립 속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토론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6일 충남 도서관 강당에서 '자치경찰 목표와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조민상 신라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경찰-행정 간 협력 과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 시스템'을 설명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안착과 중장기 운영 토대가 될 자치경찰 비전을 수립 중이다.

/자치경찰행정과 041-635-5902

중부권 국립경찰병원 아산이 최적

정책토론회 열고 필요성·방안 논의
경찰대 등 경찰타운 위치해 적합

충남도가 도내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공론의장을 펼쳤다.

도는 아산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과 9월 28일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에서 '중부권 거점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 경찰타운 내 국립경찰병원 설립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을 비롯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양승조 지사는 "아산, 천안, 서산, 당진, 예산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146만 명에 달하고, KTX와 전철,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연결돼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며, 경찰대와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경찰타운에 위치해 있어 입지 조건도 안성맞춤"이라며 중부권 거점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을 아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해 2월 경찰병원 아산 설립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경찰타운 내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부지로 제시한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등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도는 중부권 거점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시 ▲충남 서북권 주민 및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숙원 사업 해결 ▲재난 의료 거점 병원 확보를 통한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확산 방지 등 신속

하고 효율적인 대응 ▲감염병 관리 고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서준배 경찰대 교수가 '선진 해외 사례와 비교한 국가 재난 대비 의료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회에는 이석구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 강욱 경찰대 교수, 이영석 아산YMCA 사무총장, 최돈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해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해법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041-635-3661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21곳 참여

도-총량관리사업장 협약

2024년까지 배출량 43% 감축

충남도가 도내 총량관리사업장 21개소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3%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도는 9월 16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총량관리사업장 대표 등이 참석

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도는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0개소와 협약을 맺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추진, 지난해 123개 사업장과 대대적인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에 대한 인식을 확산·공유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 중 올해

협약 의사를 밝힌 21개소와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도내 총량관리사업장은 지난해 협약을 맺은 123개소를 포함해 총 144개소로 늘었다.

협약 기업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할당량 대비 2024년 배출량을 43% 이상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도와 공유한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무를 심는 등 사업장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19

자신의 차로 더 큰 사고 막아

충남소방본부, 모범 시민 표창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9월 26일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응급조치하여 큰 피해를 막고 인명을 구한 도민을 표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이 모 씨는 반대편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보고, 상대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상황이 아닌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강제로 차량을 정지시켰다.

이후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보니 운전자가 경련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한 후 다른 운전자들과 교통통제 및 환자 상태 파악에 나섰다.

응급조치로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 중이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해서 이웃을 구한 도민을 격려하기 위한 '119 모범신고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9

생태계 교란 강준치 통발 미끼로 쓴다

연근해 어업인 미끼비 부담 완화

충남도가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유해 어종 강준치를 통발 미끼로 활용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충북 충주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 강준치 1톤을 무상으로 확보, '강준치 통발 미끼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강준치를 통발 미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운송이 가능한 도내 연근해 어업인에게 제공했다.

도는 앞으로 강준치를 통발 조업 현장에서 미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보급을 늘리면 연근해 통발 어선의 미끼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에 정부 정책으로 건의하는 등 강준치 통발 미끼 활용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촌산업과 041-635-4841



생태계 교란하는 유해 어종 강준치

'노거수 이야기' 주제로 전시실 꾸며

도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박물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노거수(老巨水) 이야기,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목(木)소리'를 주제로 산림박물관 출구전시실을 개편했다.〈사진〉

이번 전시실 개편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어주는 마을의 중심이었던 '노거수'의 역할을 이해하고, 노거수와 함께 살아가는 도민들의 희노애락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거수의 생태학적 가치와 향토문화적 가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노거수 ▲노거수 설화 이야기 ▲노거수 보존을 위한 노력 ▲노거수를 따라가는 충남여행 등을 소주제로 담았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31



위용 드러낸 백제 무령왕 동상

충남 공주 공산성 앞에 백제 무령왕 동상이 건립됐다.

/공주시

부여 무량사 5층석탑 출토 유물의 도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무량사 5층석탑 유물

출토유물 9점 중 8점 도난

3점 회수, 나머지 5점 미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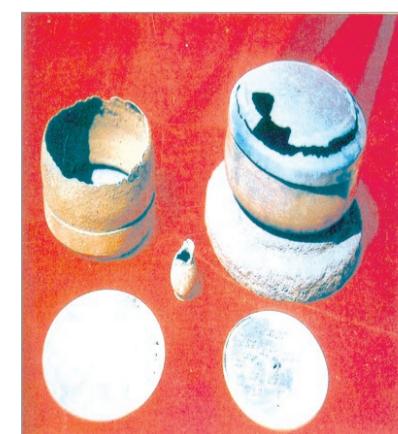
다시 12년이 흐른 2001년 2월 서울 낙원동 소재 골동품 상인이 경찰과 문화재청에 제보를 해왔다. 거동이 수상한 스님이 불상 3점을 팔겠다는 것이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수사에 들어갔고, 스님을 사칭한 전과 17범의 특수절도범을 붙잡았다. 그가 팔겠다고 내놓은 유물은 다름 아닌 무량사 5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과 금동보살좌상 등 3점이었다.

이들 유물을 무량사가 되찾은 것은 1년의 소송을 거친 뒤였다. 범인이 장물임을 모르고 매입한 유물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2002년 초에 무량사가 승소해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과 금동보살좌상 등 3점이 무사히 무량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를 불상과 함께 도난되었던 금동아미타불좌상 1점, 청동외합 및 내합, 동제보살문원판, 동경 등 5점을 찾지 못했다.

그 중 금동아미타불좌상, 청동외합 및 내합, 동제보살문원판, 동경 등 5점은 1971년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의 해체·복원 작업 때 발견되었다. 당시 모두 9점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유물들은 1983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1989년 7월, 복면을 쓴 두 사람이 무량사의 주지실 금고에서 무량사 5층석탑에서 출토된 9점의 유물 중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신고를 통해 수사에 나섰지만 유물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박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교류협력단 선임연구원



〈왼쪽〉 청동외합 및 내합, 동제보살문원판, 동경 〈오른쪽〉 금동아미타불좌상

보령·태안발 동서축 고속도로 2개 건설한다

보령부여축·태안축 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접근성 향상, 관광 활성화

충남 보령과 대전, 태안과 서산을 연결하는 동서축 2개 고속도로가 탄생한다.

도내 전역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및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보령·부여축 고속도로’와 ‘태안축 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의 ‘제2

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으로 이뤄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내에서는 2개 노선축이 이름을 올렸다.

보령·부여축 구간은 총 연장 70.5km로 2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고속도로는 보령과 대전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대전과 세종 등 중부 내륙권과 서해안 지역 접근성을 높

여 관광객 증가, 관광산업 유통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부여와 공주, 논산, 계룡 등 남부 내륙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도내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축 고속도로는 총 연장 25km로, 소요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다.

이 도로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태안군에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해안 지역과 태안기업도시, 충남공항, 충남신도시(내포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게 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와 함께 민자로 추진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축이 기준 남북 1축 지선에서 남북 2축 간선으로 상향 반영됐다.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 세종으로 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남북 2축 지선에서 남북 4축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북 10축 가운데 도내에 5축 간선이 지나며, 충남은 대한민국 교통 거점지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 도내 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서

해안선 등 7개 노선이 있으며, 설계 또는 건설 중인 고속도로는 서부내륙과 당진~천안, 대산~당진, 서울~세종 등 4개 노선이 있다.

종합계획에 두 노선이 신규로 지정되며 도내 고속도로 접근은 어느 곳에 서든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 “두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충남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서해안 지역 관광 활성화, 남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코스모스 활짝 핀 서산 천수만 간척지

충남 서산시 양대동 천수만 간척지 A지구 농로를 찾은 한 시민이 활짝 핀 코스모스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유동훈 신임 충남연구원장 취임

“충남 미래발전위해 노력할 것”



며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도적인 정책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는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난 유 원장은 종경고와 동아대 경영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 광운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박사수료)를 졸업했으며, 최근까지 동아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역임했다.

/충남연구원 041-840-1192

충청 첫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충청권 산학연관 온라인 개최

정보보호 인재 양성 등 기대

충남도는 9월 30일 충청권에서는 처음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를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발굴과 위기 대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여는 이번 컨

퍼런스는 국가정보원 지부에서 주최하고, 도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건양대, 한국중부발전 등 충청권 산학연관이 공동 주관했다. 컨퍼런스는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주니어부 4팀, 대학부 8팀 시상,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주니어부는 충청권에 거주하는 중고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건양대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됐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사이버보안 기반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는 역내 정보 보호 인재 양성, 기관 정보 보호 인식 강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담당관실 041-635-3731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전면전 돌입

내년 3월까지 상황실 꾸리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방

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시·군을 비롯한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및 농협 등 24곳에 특별 대책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철새도래지 18개소 121km 축산차량 전면통제 ▲전담관, 공수의, 방역사 등 534명 동원

축산농가 매일 예찰 ▲소독차량 123대를 활용한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으로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새 분변과 야생 멧돼지에 대한 AI·ASF 항원, 구제역 항체 등 총 13만 건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09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필요”

도지사 견의문, 도민 서명부 전달

충남도가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9월 15일 조선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양성하고 전 국민 대상의 화재안전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의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 11월 중에는 설립계획을 확정하

고 내년도에 청사 신축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원 충남지부 청사는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산학용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향후 지부가 신설되면 다른 시도로 유출되었던 연간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자격취득 교육을 충남에서 시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65

통정체 구역 관리 대책 추진 상황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등 8건을 보고했다.

또 ▲내년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 편성(안)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근절 국민 다짐 릴레이 캠페인은 정기회의 참석 위원 전원이 참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자치경찰행정과 041-635-5902

백제 가마터 ‘와요지’ 다시 태어난다

사비성 시기 대규모 기와 제작 단지

보호각 씌워 문화·교육 공간으로 조성



올 하반기 착공될 백제 가마터 보호각 조감도.



국가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부여]충남 부여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암리 와요지 보호각 건립 공사에 대해 올해 8월 설계 완료하고 건립공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여 정암리 와요지는 백제 사비기(6세기 후반~7세기 전반) 국가가 운영한 대규모 가마 단지다. 1988~1991년 3차에 걸쳐 이뤄진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기와 가마터의 모습이 매우 잘 남아 있음이 확인됐으며, 백제 가마 연구 자료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2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보호각은 유구 보호와 전시기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구조물로, 문화재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정비 방법의 하나다. 설치는 B지구 1~9호 가마와 올해 건립부지 발굴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가마 1기와 가마폐기장

1기를 포함해 총 11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8월 전체면적 1477.5m²(데크면적 424.33m²+유구면적 1023.17m²), 높이 9.3m 규모의 보호각 설계를 완료했고,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했다. /부여군 제공

솔뫼성지 세계성체대회 도자기 봉헌

1989년 김수환 추기경이 감사 뜻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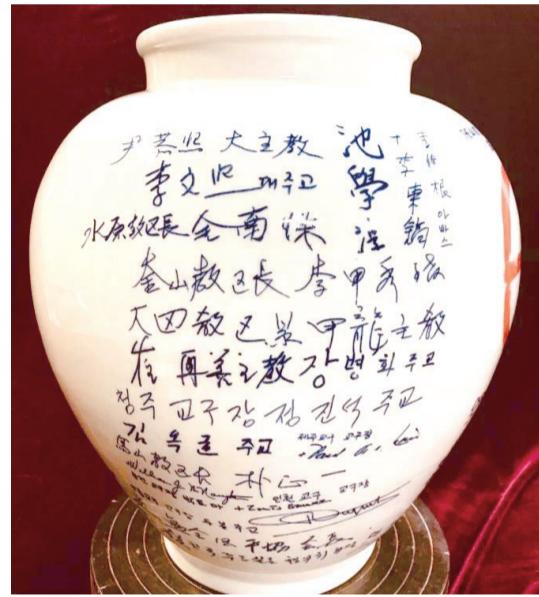
[당진]솔뫼성지에서 김대건 신부 순교일인 9월 16일을 기념해 지난 198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성체대회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 선물한 도자기 봉헌식이 개최됐다.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대회장으로 지난 1989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준비위원회장을 맡아 개최된 바 있으며, 이때 제작된 세계성체 대회 기념물이 김갑용 도예가의 백자다.

해당 도자기는 중앙에 성체마크 있고 그 아래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김수환 추기경의 문장과 서명, 낙관이 있으며 좌, 우측에는 각각 교황청 관련 추기경, 우리나라 주교, 교구장 등의 친필 서명이 새겨져 있으며, 1989년 당시 2점이 제작됐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세계성체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도자기 1점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 선물했고 현재까지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돼있었다.

솔뫼성지 이용호 주임신부는 “순례자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기억과 희망’ 전시실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제공



당진 솔뫼성지에 봉헌된 1989년 세계성체대회 도자기

행사&전시 안내



O보령해저터널 마라톤대회

- 일정 : 11월 13일
- 장소 : 대천해수욕장~보령해저터널
- 코스 : 하프/10km/4.6km 건강러닝
- 신청 : 10월 29일까지 대회 홈페이지

■ 보령시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마라톤대회는 하프, 10km, 4.6km 건강러닝 3 가지 코스로 진행되며,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한 화콘도 앞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보령해저터널 입구에서 반환해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서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스별 출발 시간도 세분화해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29일 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대회 사무국(☎ 02-785-0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O ‘익명의 개척사’ 展

- 일정 : 오는 11월 27일까지
- 장소 : 별의별 갤러리(홍천복지회관)
- 이응노생가기념관과 홍천마을의 협력 프로젝트 ‘익명의 개척사’ 展이 오는 11월 27일까지 ‘별의별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의 ‘익명’은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를, ‘개척사’는 이응노 화백이 1926년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 ‘개척사’(開拓社)란 간판점을 차려 운영했던 사실을 뜻한다. 새로운 익명이 흥성에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익명의 개척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릴레이 개인전(최윤희·함다운·김나영·모은미)으로 형태로 진행된다.

을 이야기했다. 그는 봉건적 유습이 남아있는 당시 사회를 향해 정신적 정조관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다. 소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시키며 인물들을 통해 그것을 실천해나간 김일엽. 그러나 마지막에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불심이었다.

여성 해방론과 자유 연애론을 주장하고, 여성의 의식계몽을 주장하는 글과 강연 활동을 하던 중 불교에 심취, 1933년 만공선사 문하에 들어가 법문을 받고 속세를 떠났다.

남성 중심의 사회와 문학계를 흔들어놓은 신여성으로 강렬하고 뜨겁게 여성 해방의 한 획을 그은 그는, 수녀사에서 수도하며 여생을 보내다 1971년 1월 76세의 일기로 입적했다. ‘추회(秋懷)’, ‘이별’, ‘동생의 죽음’ 등 수십 여 편의 시와, ‘사랑’, ‘자각’, ‘순애의 죽음’ 등 소설을 남긴 그는 나혜석, 윤심덕과 더불어 개화기 여성계 별자리를 차지하던 지상에서 삶의 자취 일체를 지워버렸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유학 중 허영숙, 이광수 등과 교류하며 문인으로 데뷔, 조선인 여자유학생들의 잡지 ‘여자계(女子界)’ 주간인 나혜석을 만난다.

3.1만세 운동이 무위로 돌아가자 냉혹한 국 제정세에 실망, 학업을 멈추고 귀국했다. 그 후 여성운동에 몰입하면서 1920년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고 주간이 됐다. 필진으로 박인덕, 김활란, 이광수 등이 참여했다. 이는 한국 최초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잡지로 꼽힌다.

나혜석과 공개적인 글을 주고받는 등 신여성으로 유명해지면서 동아, 조선, 매일신보 등에 칼럼과 논설을 기고했다. 당시 이광수는 일본의 전설적인 여성작가 하구치 이치요(浦口一葉)의 이름에서 ‘일업’이란 아호를 지어줬다.

1920년대를 대표한 문학가로서 여성의 자각

충청인의 詩香

다시, 가을 하늘

초가을 풀밭에 누워
푸른 히늘에 밭을 담근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느릿느릿 헤엄쳐간다

온몸을 담그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곳까지 흘러가면
노을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언제쯤
그리운 얼굴들이
사립문에 당도할 수 있을까
나는,

초가을 풀밭에 누워
소나무에 걸린
낮달과도 눈을 맞추었다

정 인숙 시인
·‘문예한국’ 신인상 (1998)
·한국문인협회, 충남시인협회 회원
·천안문인협회 지부장
·천안여류시동인회 사회집 다수
·시집 ‘장다리꽃 나비춤’



“안면도로 가을꽃 구경 오세요”

태안 가을꽃 박람회 17일 개막

코로나 백신 접종자만 입장 가능

[태안]코리아플라워파크가 17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에서 2021 태안 가을꽃 박람회를 개최한다. 안젤로니아, 천사의 나팔, 천일홍, 쿠르쿠마, 핑크뮬리 등 가을에 만나 볼 수 있는 모든 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21 태안 가을꽃 박람회는 보라색과 흰색의 조화를 이룬 안젤로니아 꽃이 성벽 넘어 탄성을 자아낸다. 핑크뮬리가 가득한 2경은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한다. 여름의 툴립이라 불리는 ‘쿠르쿠마’ 와 꽃대가 아래로 향하는 ‘천사의 나팔’ 또한 눈여겨 볼만한 꽃 중의 하나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종들과 이름도 생소한 식물들을 보는 재미가쏠쏠하다.

전국 최초로 백신을 접종한 방문객에게만 입장이 허용된다. 1차만 접종해도 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종이 증명서를 지참하면 티켓 발권을 할 수 있다.

입장료는 최대 60% 할인, ▲성인 5,000원 ▲경로 4,000원 ▲청소년 3,000원에 적용된다.

문의는 코리아플라워파크 홈페이지(www.koreaflowerpark.com) 또는 전화(☎ 041-675-5533)로 하면 된다.

신문웅/주간태안신문

봉건적 문학계를 흔든 신여성

예향 충남, 그 맥을 찾아서(25)

예산 시인 김일업

국내 여성 최초로 잡지 ‘신여자’ 창간
남성 일색 사회서 여성의 자각을 외쳐
해방론·자유연애론 주장 의식계몽 앞장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일업. 그는 여성운동가로, 승려로 더 유명하다. 본명은 김원주(金元周)다. 1896년 평북 용강에서 태어나 개화된 부모덕에 삼송보통여학교를 다녔다. 여기서 윤심덕, 박인덕 등을 만나 오래 친구로 지냈다.

1918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낫신여학교와 도쿄 에이와학교에서 공부했다.

을 이야기했다. 그는 봉건적 유습이 남아있는 당시 사회를 향해 정신적 정조관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다. 소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시키며 인물들을 통해 그것을 실천해나간 김일엽. 그러나 마지막에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불심이었다.

여성 해방론과 자유 연애론을 주장하고, 여성의 의식계몽을 주장하는 글과 강연 활동을 하던 중 불교에 심취, 1933년 만공선사 문하에 들어가 법문을 받고 속세를 떠났다.

충남도정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있다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 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동서양 위인들의 성공비결은 독서狂이었다

내포칼럼



김동회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밥 먹듯 선거에서 떨어진 링컨
여러서 마약·성폭행 겪은 윈프리
조정 방해로 백의종군한 이순신
수많은 시련, 난관 넘은 정주영

거듭된 실패로 탄생한 인물들이
평범한 이에게 전하는 인생수업
“고배를 보약 삼아 내면 다지고
독서로 ‘나만의 길’을 개척해야”

“호랑이는 한 번 사냥 성공을 위하여 열아홉 번의 고배를 마신다”고 한다. 이처럼 백수의 왕도 어렵게 먹이를 구한다. 오직 힘의 논리만 작용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실패는 다반사다.

하물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작동되는 인간사회에서 실패는 당연지사인데도 모두가 성공만을 꿈꾼다. 그렇기에 실패를 바탕 삼에 반전에 성공한 각각의 스토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동기부여가 된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밥 먹듯이 했지만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인류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 궁벽한 시골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은 18개월이 전부였다. 23세에 도전한 주의회 선거에 낙선한 이후 각종 선거에서 모조리 고배를 마시다가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51세 때다. 선원, 배달원 등 다양한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독서로 축적한 내면의 힘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의 용기를 얻은 것이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의 여왕은 오프라 윈프리다.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 출신에 가난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했다. 어린 나이에 담배, 마약, 불량 행동, 성폭행에 의한 조기 출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낭패와 불운을 경험했다. 방송에서 미국인과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은 아픔과 상처를 자양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체질한 밀바닥 경험과 끊임없는 독서 덕분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이다. 장군은 원래가 무인이 아니라 문인이었다. 문인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고 내면의 세계를 천착하며 “살려하면 죽고 죽자하면 산다”는 철리를 터득하게 된다. 이런 확고한 내면세계의 정립은 연이은 과거 낙방, 백의종군, 조정의 갖은

핍박과 방해를 이겨 낼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끝내 23전 23승이라는 전쟁 역사의 신화를 창조하고 명해가는 조선을 구해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며 글로벌 기업을 이끈 정주영은 많은 난관과 실패를 그저 값비싼 경험으로 치부했다. 남다른 불굴의 정신력과 지혜는 소년 시절 열독한 소학, 논어 등 동양 고전을 통해 확고한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의 학력이지만 출장길에도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며 마음 균력을 키웠다.

금속표면처리 업체인 대동금속화학을 창업한 양경준은 유명한 독서광이다. 손에서 책을 놓질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독후감 경진대회를 통하여 마음의 눈 높이를 키워주고 있다. 결국 사장과 사원의 단단해진 정신 균력을 통해 도금 업체를 세계 일류 중견기업으로 끌어 올렸다. 기술력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 받아 선주문된 상당한 물량 확보로 기업 쾌속 운행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범인(凡人)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운을 겪으며 좌절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 위기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실패나 실수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면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름다운 실패는 성공에 도달하는 시험대임을 필자는 경험적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 아픔, 갈등 하나하나를 자산으로 축적 정신의 균력을 키워야 한다. 내면의 세계를 다지고 마음 균력 강화에는 다양한 역경 경험이나 독서가 좋은 처방임을 역사가 입증한다.

인체의 숨은 지휘자, 대장

내 몸이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신세이자라, 수시로 “뿌글뽀글…”, “꾸루루꾸루루…”, “뽀옹~”, “피익~” 난처한 소리로 제 존재를 알리려고 애쓰곤 하는 저의 이름은 대장입니다.

무려 7m에 이르는 긴 소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음식물이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만드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류에 풍부한 섬유질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으며 배설되기 때문에 대변량을 늘려주어 원활한 배변의 필수 성분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중에 배변 자체가 겁이 나서 소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야말로 변비 치료의 기본입니다.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어도 아랫배가 아프고 가스가 잘 차고,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하는 귀찮은 증상이 벌써 수년째 지속되신다구요? 오래된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이 지내고 계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병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당신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율신경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안심할 것은 이러한 경우에 대장암이나 대장염 같은 심각한 질병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섬유질의 섭취는 줄고 지방 섭취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대장암의 발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 40세 이상이 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3~5년에 한 번씩 대장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치질이나 치루가 없는데 대변에 피가 나오거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소화불량이 생긴 경우, 갑자기 심한 변비가 생기거나 대변이



계속해서 가늘게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날 복용하는 장 청결제가 많은 분에게 끔찍한 경험이지요? 찢찔한 맛의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알약 형태의 장 청결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약 먹기 힘들다는 핑계로 검사를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 주세요. 대장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물론 다행이구요, 이에 더해 작은 용종들을 제거한다면 암예방 효과까지 누릴수 있으니까요.

/정유석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정록 시인의 서랍

주객

주객은
생을 마친 나무의 혀다
나무라면, 나도
주객으로 마무리되고 싶다
나를 패서 나로 지은
그 뼈저린 밥솥에 온몸을 묻고
눈물 흘려보는 것, 참회도
필생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뜨겁 밥풀에 혀가 데어서
하얗게 살갗이 벗겨진 밥주걱으로

『제비꽃 여인숙』 민음사

그릇에 채워주는 희생이 있다. 주객과 같은 따스한 시를 쓰고 싶다. 아니면 밥주걱 같은 종이가 되고 싶다. 살갗이 벗겨지는 고행은 훈장이다. 착한 사람이 되어 세 치 혀를 반성하면서 진실을 노래하고 싶다. 참회도 밥처럼 식으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 쉬어버리고 하리라. 차회도 산 자만의 축복이다. 종이는 늘 소복을 입고 죽어가는 영혼의 말에게 장례식을 치러 준다. 혀바닥이 잔뿌리를 거두는 날까지, 시인은 제가 키운 나무주걱으로 자신을 후려 팬다.



이정록 시인

기부영웅 정장로와 명예의 전당

생생현장리포트



김장환
서천신문 기자

것은 가족들에게 비밀을 당부해 최근 유가족이 인터뷰 도중 밝힌 일이다. 정씨가 남다른 봉사활동과 함께 지금껏 기부한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이 훌쩍 넘는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사랑을 실천했던 ‘기부영웅’ 정장로 씨를 위한 지역 차원의 선양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자랑스러운 충남인, 좋은 한국인대상에 이어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이 역시 잊혀질 일만 남았다.

사회를 위한 봉사나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이들은 많으나 노고나 업적을 치하할만한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이버 공간 활용과 공로비, 흉상 등을 활용한 서천만의 ‘명예의 전당’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서천인 명예의 전당 건립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도 되고 공적비 공원의 경우 서천군에서 조성한 가로공원, 서천군 신청사 유튜부지나 도로공원 등 차량 접근성이 쉬운 지역을 활용하면 그리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육성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서천 빌전에 공로가 있는 인물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작업을 거쳐 공적비를 세운다면 출향인사는 고향 빌전에 대한 감사표시를 할 수 있고 해당 인물에게는 자금심 고취, 후세들의 교육 효과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5년 소록도를 직접 찾아 한센병 환자 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6억 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민의 관심과 군의 시급한 사업 추진을 기대해 본다.



한 연구원의 집념이 ‘한여름의 황금 들판’을 만들었다

빠르미 개발자 윤여태 박사

사업비 지원 없이 남몰래 연구
하우스 귀퉁이에서 10년만에 결실

재배기간 70일 이기작, 3모작
가능케한 빠르미 탄생시켜
“식감까지 뛰어난 빠른 벼 목표”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지만, 그 개발 과정은 어두운 터널을 걷는 일과 같았다.

윤여태 박사는 “빠른 벼(극조생종) 개발을 마음먹었을 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조차 없었다. 주어진 업무를 끝내고 나서야 남몰래 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냈다”며 “남들은 빠르미가 최첨단 시설에서 탄생한 줄 알지만, 비닐하우스와 작은 라디에이터(난

방장치)가 전부였다”고 지난 일을 더듬었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게 되겠어?’, ‘빠른 벼 개발해서 뭐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빠른 벼는 맛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탓에 대부분 충분한 재배 기간을 요구하는 ‘느린 쌀’에 주목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현장의 목소리

를 들을 때면 마음을 다잡았다. 극조 생 벼는 수익성이 뛰어난 원예작물 재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9월 이후 집중된 쌀 수급 조정 측면에서도 꼭 필요했다.

국내외 다양한 쌀 품종의 유전자원을 교배, 시험 재배하기를 4000여 일.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뚫고 2018년 드디어 빠르미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윤 박사는 “첫 빠르미를 마주하기 까

지 10여 년.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가장 빠른 햅쌀”이라는 독창적인 색깔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고유의 차별화된 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윤 박사는 ‘빠른 벼는 맛이 없다’라는 편견에 맞서 남다른 입맛을 자랑하는 충남 쌀 개발에 뛰어들 계획이다. 그는 “빠르미가 신선하지만 맛이 뛰어난 편은 아니다”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감을 높이는 벼 개발이 최대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미 빠르미 보다 찰진 ‘여르미’와 ‘빠르미 찰’을 개발했으며, 또 다른 후보군들도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윤여태 박사는 “논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미 개발이 농업 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벼가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벼를 수확한 뒤 논의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토마토, 수박 등 수익성 높은 원예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 수익 창출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윤여태 박사가 지난달 9일 충남농업기술원 내 재배되는 쌀 ‘여르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충남도 극조생종 쌀 ‘빠르미’

가뭄 잡은 ‘부력식 자동 제수문’… “물꼬 싸움 이제 걱정 없어요”

송준영 (주)한길 대표

농수로 끝에서 하천으로 벼려지는 물 실리기 위해 자동제수문 개발
“농민 시름 덜 수 있어 행복해요”

‘털털털털털털~ 텔털털털털~’

한여름 논 주변에서 물을 힘차게 끌어 올리는 경운기 소리. 누군가에게는 시골 풍경을 떠올리는 정겨운 소리지만 그 안에는 농촌의 시름과 애환이 숨어 있다.

이는 농수로의 물줄기가 ‘얕개’ 흐느 데서 비롯된다. 저수지에서 개방된 물이 용수간선을 거쳐 용수지거에 이르면서 양이 줄어, 농수로 바닥에서 20~25cm 위에 붙은 급수봉에 달지 않고 흘러 벼려지기 때문이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선 경운기를 이용해 물을 끌어다 쓰거나, 수로 중

간을 무거운 비료 포대나 벽돌로 막아 물을 가둬야 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물꼬 싸움’은 어느새 농촌 상징이 되버렸다.

최근 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농민들의 답답한 가슴에 물꼬를 튼 해결책이 농촌 사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바로 송준영 (주)한



송준영 (주)한길 대표

길 대표가 개발한 ‘부력식 자동제수문’이다. 송 대표가 개발한 부력제수문은 농업용수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전답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한줄기 빛’이다.

그는 “농수로를 비료 포대나 벽돌로 막는 방식은 퇴적물이 쌓여 결과

적으로 물의 흐름을 끊는다”며 “농 어촌공사 한 개 지사에서 매년 8000만~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농수로 준설공사에 쓰는 실정”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권양

기식 제수문을 설치해봤지만 결국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문은 사람이 직접 열고



용수로 수위가 보통 20cm 위로 올라와야 급수봉을 통해서 논으로 물이 들어간다. 20~25cm 이상 오지 않으면 물은 그냥 배수로를 흘러 하천으로 벼려진다. (붉은 점선)

동 제수문’을 개발했다.

자동 제수문을 설치하자 낮은 수위에도 제수문이 일정 수준 물을 가둘 수 있었다. 덕분에 급수봉 아래로

벼려지던 농업용수가 논으로 흘러들었다. 저수지 배수량이 많거나 흥수로 수위가 높아질 땐 부력에 의해 문이 떠올라 용수와 바닥퇴적물을 배출시켰다. 저수지에서 기준 급수량의 70%만 방출해도 용수지거 끝에 있는 논에도 물이 공급됐다.

송 대표는 “부력식 자동제수문은 설치까지 40만 원 선으로 저렴하

다”며 “1개 지거에 5~6개만 설치해 도 막대한 준설공사 비용과 벼려지는 농업용수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일부 지역에 설치된 부력제수문은 농민과 각 시군의 호응에 힘입어 매년 설치구역을 넓히고 있다.

송준영 대표는 “어르신들이 유독 좋아하신다. 무거운 비료 포대나 벽돌을 힘들게 옮길 필요가 없어 한층 편리해졌기 때문”이라며 “농어촌공사나 시군 관계자들도 ‘물꼬 관련 민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전하더라.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설치 문의를 해온다”고 말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로 농촌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주)한길은 ‘농민의 어려움 해소’라는 외길을 걸어간다. 송 대표는 “현재 부력제수문은 콘크리트 농수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콘크리트 수로가 마련되지 않은 전국 30%의 지역에도 설치 가능한 장치를 개발해 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재현 scottju@korea.kr



부력식 자동제수문을 설치하면 기존 급수량의 70%씩만 내려줘도 지거나 끝에 가까운 논에도 물이 공급될 수 있다.

한산이씨 덕산종중, 목은 이색 초상화 기탁

보물 제1215-2호 누산영당본 등
유물 171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예산]고려삼은에 속하는 목은 이색 선생의 초상화가 최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탁됐다.

역사문화연은 최근 예산의 한산이씨 덕산종중(회장 이교원)에서 목은이색 초상화(보물 제1215-3호) 1건 1점, 고서 11건 47점, 고문서 58건 99점, 성책 24건 24점 등 총 94건 171점의 유물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장 중요도 높은 유물은 단연 목은 이색 선생의 초상화인 '누산영당본(樓山影堂本)'이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덕산 누산영당에 있던 원본이 훼손되자 1655년 다시 제작해 서원에 봉안한 모사본이다. 흥배가 없는 흥단령에 사모와 서대를 착용하고 교의에 앓아 왼쪽을 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얼굴 윤곽선

이나 옷주름 처리는 붉은색으로 하고 그 위에 명암을 표현했으며 안면묘사가 섬세하고 정교하다. 이색의



초상화는 예산누산영당본을 포함해 전신상 4점과 반신상 1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영조와 21공신이 회맹(공훈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책에 써 올릴 때 임금과 신하가 모여서 서로 맹세하던 일)할 당시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인 ▲이십일공신회맹록, 한산이씨 취암공파 덕산종중 종계명단인 ▲종계첩 등이 기탁 유물 중 중요 자료로 꼽힌다.

한인이씨 덕산종중 이교원 회장(사진)은 "이사회를 거쳐 우리 문중이 지닌 유물 기탁을 결정했다"며 "가장 유래 깊은 목은 이색 선생님의 초상을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예산 한산이씨 덕산종중이 최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탁한 목은 이색 선생의 초상화(보물 제1215-3호 누산영당본)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간 기증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김성태 보령시 수산자원팀장
급성간부전母위해 이식수술



하지 않으며 생계유지에 힘써왔다. 남편

이 쓰러진 지 3년만인 2013년 최 씨는 급성간부전으로 쓰러져 3~4일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김 팀장은 망설임 없이 수술 적합판정을 받자마자 즉시 수술대에 올랐으며, 자신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식 후 최 씨의 상태는 좋아져 외로운 마을 어르신들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요양보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한 어머니와 효심 깊은 아들의 이야기는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다시 소개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최 씨는 "살아서 손자도 보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건 다 아들 덕분"이라며 "간을 기증해준 아들과 이식을 허락해준 며느리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팀장은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니 어머니가 더는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무지갯빛 이팔청춘, 꿈의 무대 오르다

서령중 연극 동아리 '씨네애틱'
제8회 청소년 심리극대회 대상

연기할 수 있었다"며 "도와주신 연극 강사 김현진 선생님과 지도교사 이지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현 지도교사는 "씨네애틱 학생들은 무지개 같은 아이들이다. 아이들

이 자신감을 찾고 자존감이 형상되고 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늘 열심히 따라와 주는 아이들,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의 능력을 증폭시켜 주시는 강사 선생님, 아이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학교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찬순/충남포커스



이지현 지도교사와 씨네애틱 연극 동아리 학생들

논산농업기술센터, 떡 제조기능사 배출

쌀 소비 촉진 전문리더 양성
향토 음식문화 계승·발전 기대

로 나눠 우리 떡에 대한 지식과 제조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론과정을 이수한 24명의 수강생 중 2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며, 두 달 과정의 실기수업을 이수하고 최종시험에 도전한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교육생들은 비쁜 농사일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병행 추진으로 수강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성실히 참석한 결과 최종 합격하게 됐다.

/논산시 제공

당진시청 권순우 ATP 우승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이자

이형택 이후 18년 만에 우승



권순우가 지난달 26일 ATP 투어 아스타나오픈 단식 결승에서 정상에 오른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어울렸다. 종전 그의 개인 최고 랭킹인 69위를 훌쩍 뛰어넘었다.

권순우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카자흐스탄까지 이동 거리가 있어서 편하게 경기하자고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50위 이내, 20위, 10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정신문팀

이미선 대표, '백년소공인' 선정

15년 이상 숙련기술 소공인 수여

"장인 정신이 성공을 위한 밑거름"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미선 대표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며 "코로나 시대에 모두 어렵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매진하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년소공인'은 경력 15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소공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인증서다.

신민철/온양신문

원소 이름에 담긴 118가지 사연



사서들의 서재



〈피터 워더스/월북/2021〉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일까?

이 책은 '화학' 하면 떠올릴 이미지 중 하나인 '주기율표' 속 118가지 원소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단순히 화학의 역사만 다루지 않고, 학문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짚어가며 알려준다. 이 책의 원서가 나온 2019년은 드미트리 맨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지 1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총 아홉 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성격이나 유래 등에 따라 여러 원소를 묶어서 설명한다. 인류가 오래 전부터 그 존재를 알고 활용해왔던 원소인 금속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마지막 장에서는 자연적인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기 힘든 인공원소를 언급한다. 관심이 있는 원소부터 읽어본다거나, 익숙한 순서대로 뒤부터 읽어봐도 나쁘지 않다. 원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대한화학회 홈페이지 '주기율표와 원소, 150년의 이야기' 시리즈 영상을 보아도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원소들은

/김희영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사서

서산-당진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 만든다

대곡리 한티고개~해미순교성지
서산시, 11.3km 순례길 조성키로

천주교 유적지 있는 버그내 순례길
당진시, 순례길 13km 관광자원화

[서산·당진]해미국제성지가 있는 서산 시와 탄생 200주년을 맞은 김대건 신부의 고향인 당진시가 한국판 산티아고(스페인) 순례길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산시는 ‘글로벌 종교 순례지’ 구현을 통해 유럽 위주의 순례 관광 패턴을 바꿔놓겠다는 전략이다.

서산 해미면 대곡리 한티고개~해미순교성지 구간(11.3km)에 천주교

순례길을 조성하고 이를 내포지역 천주교 명소를 하나로 잇는 해미국제성지 순례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순례길은 병인박해 등 1800년대 천주교 박해 당시 내포지역의 수많은 순교자가 서산해미읍성과 해미국제성지(여수골)로 압송됐던 경로다. 순교한 신자 2000여 명 중 132명은 이름이나 세례명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나 나머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서산시는 “해미국제성지가 화해와 평화, 생명과 미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K-POP처럼 K-순례길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역 천주교 유적지를 하

나로 잇는 버그내 순례길을 명소화한 다. 또 대한민국 공식 산티아고 순례자 여권에 버그내 순례길을 홍보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그내 순례길 이정표를 설치하는 등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올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순례길 위치정보와 날씨, 걸음 수, 활동 칼로리 등을 담은 버그내 순례길 스마트폰 앱도 개발했다.

3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버그내 순례길은 국내 첫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 솔뫼성지를 출발해 신자들 간 만남이 이뤄진 버그내 시장과 합덕성당,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를 지나 무명 순교자 묘역을 거쳐 신리성지까지 가는 13.3km 코스다. /도정신문팀



1929년 건립된 충남 최초 합덕성당(충남도 기념물 제145호)

‘동아시아 교류 왕국 백제’를 만나다

백제와 활발히 교류한

베트남, 일본, 인도 등

대통령기록관 소장품 전시

[공주]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역대 대통령들의 선물을 통해 활발한 동아시아 교류를 이끌었던 백제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관심을 모았다.

공주시에 따르면 ‘동아시아 교류 왕국의 중심 백제, 그 찬란한 빛’을 주제로 한 대통령기록관 협력 특별 전시가 10월 3일까지 고마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과거 백제와 활발히 교류했던 베트남과 일본, 인도 등 7개국



은제 다기 세트로 주전자 높이는 13cm다. 고노무현 대통령이 ‘싱 나트와르’ 인도 외무장관으로부터 지난 2004년 12월 18일 받은 선물. /공주시 제공

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줬던 선물 20점이다.

특히, 선물 중에서도 무령왕릉 출토 유물 중 돋보이는 금속 유물과 통하는 작품을 선정했다.

/도정신문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4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 ‘스즈키 쟁코’ 총리로부터 받은 선물로, 일본 국조를 모형화 한 작품이다.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 추모제 거행

유관순 노래 제창

[천안]유관순(1902~1920) 열사 순국 101주기 추모제가 염수됐다.

천안시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는 28일 유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주님사 낭독, 현화·분향,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유족과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천안시 병천면 출신인 유 열사는

1919년 4월1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옥중에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항거했으나 모진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이듬해 9월 28일 순국했다.

1962년 독립장에 추서된 유관순 열사는 2019년 3.1운동의 상징으로서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받았다.

/도정신문팀



성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결성읍성 정비 사업은 5년간 총 28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석당정) 및 문화공원 조성, 결성읍성 동문 복원 및 성과 정비, 문화탐방길 등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체성(길이 47.6m, 높이 4.6m) 및 체성과 옹성 연결구간(길이 3.5m, 높이 4.6m) 등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성과 정비가 본격화됨으로써 결성읍



결성읍성 동문지 전경

홍성 결성읍성 복원사업 속도낸다

충남도 현상변경 심의 통과
동문지 성곽 정비 본격화

[홍성]지지부진했던 홍성 결성읍성 동문지 성곽 정비가 본격화된다.

27일 홍성군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제222차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성읍성 동문지 성곽정비에 대한 현상변경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다.

정비 사업 내용 중 동문 문루 복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추가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보류됐다. 현상변경 심의 통과로 2년 만에 실시설계에 재착수할 수 있게 된 것.

결성읍성 동문지 성곽정비는 성벽

결성읍성 정비 사업은 5년간 총 28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석당정) 및 문화공원 조성, 결성읍성 동문 복원 및 성과 정비, 문화탐방길 등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증명’과 동일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1500여 년 전인 백제 시대 궁중에서 마시던 술로 한산 지역에서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문현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서천군 제공

당진시 손병희 선생 고택 복원

민족대표 33인 대표

동학농민혁명 주도

[당진]손병희 선생 고택 복원사업이 완료했다.

당진시는 수청 2지구 근린공원에 조성된 고택은 대지면적 573㎡, 건물면적 74㎡의 규모로 안채와 담장, 바깥채(주춧돌만 복원)를 복원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동학

의 3세 교주를 지낸 바 있으며, 1894년 북접의 통령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다가 실패해 은신 생활을 하다 1898년 8월부터 1899년 10월까지 1년 3개월 간 당진 수청리 모동에서 대도소를 두고 활동했다.

시 관계자는 “손병희 선생이 살았던 생가는 청주와 당진 두 곳에만 존재해 기념물적 특성이 우수하다”며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적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제공

추억의 콩쿠르대회 열렸다

공주시 중학동 콩쿨대회 열어

[공주]공주시 중학동은 지난 추석을 맞아 공주하숙마을에서 구성객과 함께하는 ‘추억의 콩쿨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공주시민 및 관광객 등이 참여해 피카소밴드의 반주에 맞춰 평소에 갈고 닦은 노래솜씨를 맘껏 뽐냈다.〈사진〉

또한 하숙마을 옆에서는 공주의 옛 모습을 간직한 사진들이 전시됐다. 아울러 옛날 카세트, 전축, 성냥, LP판, 카세트테이프, 선데이 서울 등 추억의 물건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구성객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열렸던 콩쿨대회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기쁨이 끊임없다”며 “내년 콩쿨대회가 크게 기대된다”고 즐거워했다.

전홍남 중학동장은 “콩쿨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 모두 기뻐해 주셔서 좋았다”며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섭/특급뉴스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 표시 등록됐다

한산 모시 이어 두 번째

100일 이상 숙성 거쳐야

[서천]서천 한산모시에 이어 ‘서천 한산소곡주’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상품으로 등록됐다.

서천군 ‘서천 한산소곡주’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품 질 기준’에 따라 서천군 한산지역(한산, 화양, 기산, 마산)에서 생산된 쌀, 찹쌀, 밀을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및 100일 이상 장기간의 발효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서천군 제공

“농군님들! 신명나는 줄다리기로 한바탕 놀아보세”

기지시 줄다리기 전승자
김영수 농악대장 타계
농악·짚풀공예 50년 활약

[당진]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 전승자 김영수 선생(향년 82세)이 지난달 6일 별세했다.

기지시 줄다리기 전수자인 김영수 선생은 16살이 되던 해 기지시 줄단장에서 사당패의 농악놀이 구경을 계기로 사당패에서 농악을 배웠다.

1960년대부터 기지시 줄다리기 품물

행사 때마다 상쇠로 참여한 김영수 선생은 1970년 당진군 농악대(현 기지시 줄다리기 농악본부단) 상쇠를 맡았다. 1980년에는 당진군 농악대 초대 회장을 맡았다.

김영수 선생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한 전통 민속 대보름맞이 행사, 남북통일기념 설문화 축제, 2002월드컵 문화축전 등 큰 행사 때마다 농악 대장으로 활동했다.

또 농악을 알리기 위해 힘써온 선생은 당나루 풍물단, 송악농협 주부풍물단 등 당진 고유의 흥겨운 농악을 알리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했다.

농악뿐만 아니라 짚풀공예 장인으로

도 활동한 김영수 선생은 고령의 나이가 무색하게도 남다른 열정으로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후배 전승자들의 귀감이 됐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198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됐고, 지난 2015년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매년 음력 3월초 개최된다.

볏짚 4만단, 길이 200m, 무게 40톤에 달하는 줄을 제작해 십만 명이 줄을 당기는데,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당진신문/이석준



기지시 줄다리기 전승자 고 김영수 농악대장의 생전 모습

천안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안 봐준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폐지
주정차도 24시간 단속으로 변경

[천안]천안시가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폐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운영시간을 점심시

간 유예 없이 24시간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를 받아왔다.

그러나 화재관련 응급상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시간을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24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

앞서 천안시는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고정형 및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을 15분에서 5분으로 축소하고 점심시간 유예를 폐지했다.

/천안시 제공

백종원과 함께하는 예산 외식창작소 문 열었다

백 “전국 외식창업 중심으로”
옛 보건소 활용, 요리창업실
학습관·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예산]전국 외식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예산군 신활력창작소가 문을 열었다.

신활력창작소는 33억 원을 들여 구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평생학습관, 요리창업 교육을 위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으로 재탄생한 것.

백종원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군

에 5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전문 창업교육과 베이커리 식음료 카페창업 교육 등 4개 과정 50여 개의 커리큘럼(교육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운영된다.

군에서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상호 협력으로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 시설에서 창업교육을 수료한 젊은 청년들을 예산시장 내 빈 점포에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예산시장 오픈 스페이스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군비 15억 원을 들여 시장 내 장옥을 매입하고 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백종원 대표는 “고향발전을 위한 일에 저의 힘이 보태지게 돼 무척 기쁘다”며 “저도 시간이 날 때 직접 특강을 진행하고 방송 유치 등 전국 제일의 외식창업 선두주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정신문팀

보령 성주산 ‘꽃무릇’ 만개

[보령]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가을을 여는 ‘꽃무릇’이 진홍색 꽃망울을 터트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조성한 꽃무릇 군락지는 이맘때면 5500m²에 25만여 송이의 꽃무릇이 개화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꽃무릇은 돌 틈에서 나오는 마늘종 모양을 닮았다 하여 ‘석산화’라고도 하며, 외떡잎식물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 해살이풀로 숲속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꽃말은 ‘슬픈 추억’,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보령시 제공

보령으로 여행하면 5만 원 상품권 쏜다

보령에서 20만 원 이상 쓰면
1회 방문 3만 원, 3회 5만 원

[보령]보령시를 찾는 여행객이 경비로 20만 원 이상 소비하면 최대 5만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령여행복리제’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20만 원 이상 지출한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1회 방문 시 3만 원, 2회 방문 시 4만 원, 3회 방문 시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보령 석탄박물관, 개화예술원, 상화원, 스카이바이크,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등 유료형 체험관광시설 또는 체험마을·농장을 최소 1개 이상 방문해야 한다.

참여 희망 관광객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출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 상품권 지급처인 대천관광협회 또는 무장포관광협회, 보령마드박물관을 방문하면 된다.

/보령시 제공



아산페이 1000억 판매 달성

올해는 2000억 원 목표

[아산]아산시 지역사랑상품권 ‘아산페이’의 판매가 1000억원을 달성했다.

200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아산페이 이는 지난해 2020년 714억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등 10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에는 2000억 원 발행 목표다.

아산페이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2020년 아산페이의 사용은 소매업(61%), 음식점업(17.9%), 기타(21.1%)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결과는 아산시민이 실생활



과 밀접한 소비가 아산페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 가맹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매출액의 약 20%정도가 아산페이로 결제되었다는 응답결과가 나왔으며, 지역화폐 발행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약 8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산시 제공

계룡시 인구 올해 1.2% 늘었다

대전 세종 인접 효과

저렴한 부동산 장점 요인

[계룡]대전·논산 등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계룡시 인구는 증가 추세다.

올 1월 4만 2809명이던 계룡시 인구는 올 8월 말 현재 4만 3279명으로 1.27%인 544명 늘었다.

인근 대전시 인구는 지난 2020년 1월 147만 4152명에서 올 8월 145만 4679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만 9473명 줄었다.

인근 논산시도 2020년 1월보다 3542

명 감소해 11만 5239명으로 줄었다. 계룡시 인구가 늘어난 것은 대전과 세종시 인접해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충청권 광역철도(경전철) 개통과 호남선 고속화 사업, 두마~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 유입 시책과 제대군인 정착 유도 등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22년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에게 결혼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철세/계룡일보사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증축한다

치매등록인 3년간 70% 늘어

[금산]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증축된다. 금산군의 60세 이상 주민 치매유병률은 지난 2017년 8.91%, 2018년 9.15%, 2019년 9.3%, 2020년 9.5%로 증가 추세다. 치매 등록 관리자 수도 2017년 1163명에서 2020년 1965명으로 약 69% 높아졌다.

군은 15억 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보강해 1일 수용 인원을 120명으로 늘리고 종일반 치매주간보호서비스와 인지상태 별 맞춤형 치매예방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기억 키움학교를 상시로 운영하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인 AI 기반 로봇 인지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과학적인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고위험 인지 강화프로그램 ▲치매 가족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헤아림 치매가족교실 등을 운영한다.

/금산군 제공

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대실·하대실 초교 신설 촉구



김대영 의원(계룡)은 계룡 대실·하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 계획 지연으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위험한 등하굣길에 내몰리게 됐으며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8년부터는 6115세대에 1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해당지구에 거주해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경우 최종적으로 증축을 해야 수용이 가능하다”며 신설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위기자 응급입원병원 구축해야



양금봉 의원(서천2)은 “정신과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도민 안전문제 및 민원유발 방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응급입원병원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서천지역의 경우 24시간 응급입원병원이 없어 응급정신질환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양 의원은 “정신위기자와 자살기도자의 응급 치료를 위해서는 서남부권 24시간 응급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악취통합관제센터 마련 촉구



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이 충청남도 환경감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도의 악취 문제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악취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 각 시·군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고 도에서 총괄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산농가 메탄가스 감축 도와야



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은 도내 쓰레기매립장 및 축산농가의 메탄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국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돼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라며 “유해가스 배출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가스를 채집해 전기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연구에 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도보이동 활성화해야



여운영 의원(아산2)은 BMW (BUS·METRO·WALKING) 활성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과 도보이동 활성화는 환경보존과 개인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1대는 연간 이산화탄소 4700kg을 배출, 나무 한 그루는 22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한다”며 “대중교통과 도보이용을 한다면 214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농촌유류시설 활용 해법 찾는다



‘농촌공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달 ‘충남 농촌유류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모임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읍면지역 농촌유류시설 운영·관리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이 공유됐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용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부적절한 인사 지적



김동일 의원(공주1)은 충남도 교육청 인사 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 재배치와 부당한 업무 전환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 재배치는 업무능률을 떨어지게 만들고 무관한 보직 배치, 원거리 전보 등 차별하는 경우는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道 남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절실



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은 도내 남부권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가 운영 중인 4개의 의료원 중 3개가 충남 북부권에 위치하며, 도의 최남단 지역인 논산과 금산과 같은 지역까지 수용하기엔 거리상으로 불가한 실정”이라며 “논산시와 금산군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 37.3%, 38.9%로 타 시도에 비해 높아 공공의료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하라



도의회는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 예산·홍성·당진·서산 4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320km의 내포문화숲길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숲길’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은 “내포문화숲길은 역사·문화·종교가 어우러진 지역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과수 화상병 대책 마련해야



도의회는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 및 과수목 매몰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치료제 개발 및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청' 신설로 정책 일원화해야



도의회는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 문제를 전담하여 청년정책을 일원화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으나, 감염병 사태로 고용·소득·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반환 요청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권상연 유해 충남 금산으로 반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전북 완주 ‘초남이성지’에서 발견한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를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두 분의 유해를 고향이자 신앙생활의 터전이었던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모셔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악취시설 현장 실사 의무화한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도는 최근 3년 동안 약 300억 원을 들여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사람의 모든 신체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의무제 도입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 대한 과감하고 과격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추진 점검



조승만 의원(홍성1)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고민하다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가 효율적인지, 장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홍성·예산을 통합한 폐가시티 형태로 가야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가”며 설명을 요구했다.

소멸위기 지역 특단 대책 필요



전익현 의원(서천1)은 소멸위험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등 도의 노력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우리도 소멸고위험지역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충남TP 개·보수 시급



오인철 의원(천안6)은 충남테크노파크 건축물, 시설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시설물 개·보수 요청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남테크노파크 천안 직원의 본원 건물 9개동 중 8개 동이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건물 내·외부 훼손이 심각하고 옥상, 외벽 등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시설의 방치는 활용도 저하 뿐만 아니라 이미지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설 보수 등 충남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학생 부담 경감' 예산 촉구



유병국 의원(천안10)은 “이번 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보다는 교육환경개선에 치중한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우처카드 형식의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결손과 학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산심사자료 관련 규정 엄수해야



김득용 의원(천안1)이 결산심사자료 누락 파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남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안의 심사자료 누락사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의사사무처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민 체류·정착 지원 나선다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노동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및 안전교육 지원

▲ 자녀교육 및 보육 지원 ▲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연구용역 대표 이선영 의원은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충남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 나서야



도의회는 ‘충남 당진시 소들섬 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을 채택했다.

이계양 의원이 소개하고, 당진 주민 및 학생 402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북당진·신탕정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지상공사 중단과 지중화, 우강면 소들섬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당진시 주민들의 염원인 ‘소들섬 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의정활동

의료인력 수급 체계 마련해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당진1)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 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지역특성별 공공의료 확충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220만 충남도민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천안·홍성·서산·공주의료원 단 4개소라는 현실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더 드림 사업’ 철저 지원해야



홍재표 의원

홍재표(태안1) 의원은 충남도,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4자 주체가 참가한 ‘2021년 더드림(The Dream) 행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서부발전과 하나은행이 각 1억 원씩 보증지원 재원을 출연하고, 도가 소상공인 자금과 연계해 1.7%의 이자를 2년간 보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상자는 태안군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제강점기 잔재 바로잡아야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친일잔재 현황을 파악하고, 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친일잔재청산특위는 지난달 아산시 신항리 ‘근대문화마을’과 당진시 남산공원에 위치한 ‘인태식 전 재무부장관 공적비’를 찾아 친일 행적 청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최훈 위원장(공주2)은 “도민과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2.0 선도방안 모색



정광섭 위원장

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오는 10월 도의회와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제332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자치분권 2.0 시대에 충남도의회 스스로 발전역량을 갖추고 탄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유산’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나서야

김명선 의장 의정토론회 개최

기지시줄다리기 재조명·발전방안 나서

도의회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회의장을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은 지난달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희성 교수는 ‘주민화합형 축제’와 ‘지역개발형 축제’의 융합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김명선 의장

로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건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산 머드맥스’와 같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배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영문 축제 명칭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김영구 당진시 문화복지국장은 미래세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무형문화의 콘텐츠산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명선 의장은 “기지시줄다리기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SNS 등 미래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홍보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삼 세계화·유통 개선한다



김복만 위원장

도의회는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복만 의원(금산2)을 선임했다.

김복만 위원장은 “안전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수출 확대 등 인삼의 세계화와 구조개혁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김대영 의원(계룡)이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석곤(금산1), 정광섭(태안2), 김기서(부여1), 김영수(서산2), 김형도(논산2), 방한일(예산1), 이계양, 양금봉(서천2), 지정근(천안9), 최훈(공주2) 의원 등이 활동한다.

중소도시·농어촌 대입 지원해야



김은나 위원장

도의회 ‘공교육 강화 특별위원회’는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와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은나 위원장(천안8)은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가 괴리돼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과중되거나, 지역 교육여건 차이로 학교·지역 간 불균형과 대입 불공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와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도민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집중 제보기간 : 2021.9.1. ~ 10. 31.

제보내용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비 보조금의 부당수령, 주요 낭비사례 및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보방법

▶ 인터넷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council.chungnam.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문의전화 / FAX

041-635-5083 / 041-635-5283

▶ 우편 (방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우 32416)

의원시론

지방은행 설립으로 소상공·기업인 살려야



안장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월 충남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역외 유출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업 영업 이익 본사 집중, 취약한 정주 여건에 따른 ‘직주 불일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꼭 설치돼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디지털금융의 확산 속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의문

을 품는다.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금조성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역은행을 통한 기금조성 및 배당이 이뤄진다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다.

특히 과거 IMF를 겪으며 지방은행이 퇴출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력은 악화됐고, 금융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확대된 것을 몸소 느끼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해 중·저금리 상품 개발 등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생존권 보장,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조직 고사 등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자금 융통이 부족한 경제구조는 건강을 잃은 사람과도 같다. 따라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속히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위하여



김한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치매의 날’이다. 우리나라로 이날을 법정기념일인 ‘치매극복의 날’로 정해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는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층 증가로 치매 환자와 함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늘어나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7년 3만 9986명에서 2019년 4만 4375명으로 늘었다. 65세 이

상 치매 유병률은 11.8%로 전국 평균 10.29%를 웃돌며, 17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치매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를 강조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기 진단 지원 등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해 치매 집중 치료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지자체 또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전문 의료 제공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압박을 받는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충남도는 치매 고위험군 관리, 조기 진단 및 치료, 치매 예방의 종합관리 시스템 등을 마련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

표준어에 없는 ‘개갈’, ‘시절’ 등 충청말 되살리자

575돌 한글날 특집-
충청 사투리, 국어 사랑의 길

‘개갈’은 모내기 전 논둑 손보는 일
논둑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
물이 새는 것처럼 시원치 않다는 뜻

‘시절’도 표준어다운 훌륭한 충청말
표준어 ‘멍청이’는 감정 상해도
충청도 ‘시절’은 감정 순화한 비유어

충청말 ‘부루’는 ‘상추’의 순우리말
충청과 전라 등 남북한 전역서 사용
해방후 표준어에 누락된 사투리

표준어의 절반은 사투리로 만들어
충청말 지키기가 곧 국어 사랑



이명재 시인
충청언어연구소장

사람들은 〈표준어〉라 하면 〈서울말〉을 떠 올린다. 그런데 이는 정상이 아니다. 표준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지역 말이다. 100년 전 〈조선어학회〉에서는 전국의 말을 모아 〈말모이 사전〉을 만들었다. 이때 서울에 없는 많은 말들이 표준어가 되었다.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되, 서울에 없는 지역 말은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국의 지역 말을 모아 표준어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말은 풍부해지고, 우리 국어는 세계 언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21년의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사되고 정리된 지역 말(사투리)들은 표준어사전의 절차를 거쳐 표준어가 되고 국어사전에 오른다. 사투리란 이름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어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어는 확장 발전하고, 지역과 지역은 손을 맞잡고 함께 서는 것이다.

충청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충청말은 충청인의 삶의 기반이며 문화정체성이다. 내가 모여 가족이 되고 국가가 된다. 우리가 충청의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충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내 나라 국어를 지키는 일이다. 충청의 언어는 버려지고 잊힐 언어가 아니라 아끼고 살려내야 할 내 말이다.

예를 들어 충남지방에서 널리 쓰는 말 가운데 ‘개갈 안 난다’란 말이 있다. 이는 일이 시원스럽게 진행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개갈’은 봄철 모내기 전 논둑을 손보는 일이다. 겨울 동안 무너진 논둑을 고치고,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고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개갈 안 나는 것’은 논둑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 물이 줄줄 새 나가는 것이고, 그것처럼 일이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표준어에 없지만, 충청사람들이



충청말로 만든 부여중앙시장 간판

많이 쓰고 있고 다른 지방 사람들도 꽤 안다. 없는 말도 만들어 쓰는 현시점에서 되살려 쓰기에 좋은 말이다.

‘시절’이란 말도 표준어가 되기에 좋은 충청말이다. ‘시절’은 계절이나 때를 이르는 말로 표준어다. 그런데 충청도의 ‘시절’은 비유어다. 비유어는 다른 것을 통해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유어는 세계의 언어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멋들어진 말로 통한다. 충청의 말은 비유어가 발달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시절’이다.

‘시절’은 때를 모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로 ‘넌 바보 명청이야.’를 충청말로 바꾸면 ‘너는 때도 모르는 시절이여.’가 된다. 이때 표준어 ‘바로 명청이’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반대로 충청말 ‘시절’은 그렇지 않다. ‘너는 때를 잘 찾아야 한다.’는 충고의 소린지 놀리는 소린지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참 생각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감정은 순화된다. 이런 ‘시절’은 이미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충청의 고급적인 의미만 더하면 된다. 비유어 ‘시절’은 우리가 조금만 더 써도 바로 표준어가 될 수 있다.

충청말 ‘부루(부릇)’도 마찬가지다. ‘부

루’는 ‘상추(生菜)’의 순우리말이다. 해방 후 표준어사전에 한자말 ‘상추’만 올리는 문제가 있었다.

‘부루’는 오랜 옛날부터 써오던 우리말로 충청과 전라지방을 중심으로 남북한 전역에서 써온 말이다. 그런데 해방 후 표준어사전에 누락됨으로써 사투리란 이름으로 버려진 것이다.

지금은 외국어와 외래어가 범립하는 시대다. 국제화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는 우리말을 돌아보아야 한다. 575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는 지역 말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과 국어 사랑의 길에 들어서게 되길 기대 한다.

10월 9일 한글날 :

한글사랑



사투리는 토박이들의 축적된 삶… 충청도 사람은 표정으로 먼저 말한다

충청도말 특징

- ‘퍼뜩’ 쓰면 경상도
- ‘언능’ 쓰면 전라도
- ‘어여’는 충청도

사투리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또한 사투리에는 해당 지역 토박이들의 삶 속에서 축적된 다양한 문화가 담겨 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를 뜻하는 ‘얼른’이란 말에 대해, ‘퍼뜩’을 쓰면 경상도 사람이고, ‘언능[싸계]’를 쓰면 전라도 사람이다. ‘훈저’[훈저]를 쓰면 제주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어여 와~. 어여 가~”처럼 ‘어여’를 사용한다. 경상도, 전라도처럼 충청도에도 충청도 사람들의 특유의 사투리를 갖고 있다. 충청도 사투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충청도 사람들의 사투리는 표정에 서도 읽을 수 있다. 기분 좋으면 ‘씨익’하고 웃는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동안 무표정이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다. “엥간히 혀!”

충청도 사투리는 우리말이 분화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과거, 교통과 매체가 덜 발달되었던 시절, 강이나 산과 같은 지리적 장애 때문에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형성된 독특한 말이 충청도 사투리이다. 충청도 사투리를 독특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충청도 사투리는 말꼬리를 길게 빼서 늘어뜨린다는 점이다. “아부지~ 돌 굴러가유~” “셔 가면서 시 염시엄밀 혀~” “쬐끔 더 쥐유~” “이 응감(영감), 움말 마실댕겨올테니께, 복실이 밥두 주구, 집 잘 봄유~.” “이~ 그라~ 이음려(염려) 말구 잘 댕겨와~”처럼, 느릿느릿 말하는 듯 말끝을 다소 길게 빼는 말투 때문에 충청도 사투리는 계으로고 답답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투는 유연함이 있고 여유로 움이 있는 말투이다. 충청도 사투리의 독특한 말의 가락일 뿐이다.



둘째, 충청도 사투리는 직설적이거나 과격하지 않고 차분한 편이다. 즉 상대방을 치밀하게 배려하는 신중한 화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집이 떨래미 여 우구, 훌륭한 사우 맞았더면서? 돈두 많구.” “아니 뭐... 그... 넘들두 다~ 그런디유 뭐~”

충청도 사투리에서는 ‘서두름이 없이 온화함’이 묻어난다. “좀 지둘리봐유~. 그라, 됐지 뭐. 안 그라? 아이구, 워쩐대유? 괜찮어유!” 느린 듯 하지만 여유와 배려가 있는 미감

이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사투리가 있다. “흔저년 심들어 뭇써, 하냥 혀~” “허년 짓거리가 참 개갈 안나네 그라” “뚱꼰 늠이 됨 때 화랄 내능구먼” “겟국지년 스산 지방에서 유명허지유” 여기에 표정도 있고 몸짓도 더해지면, 그리고 충

청도 특유의 느린 듯한 말투까지 더해지면 영락없는 충청도 사투리요. 그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다.

지리적으로 충청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도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머물고 있는 충청도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의 충청도 사투리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말이다.



김정태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